

탄자니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4. 4.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9
V. 종합의견	11

I . 일반개황

면적	947천 km ²	G D P	326억달러 ('13)
인구	4,920만 명 ('13)	1 인 당 GDP	663 달러 ('13)
정치체제	공화제(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Tanzania Shilling (TSh)
대외정책	친서방 실리외교	환율(달러당)	1,600

- 아프리카 동남부 인도양 연안에 위치한 탄자니아는 한반도의 4.3배에 달하는 국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케냐,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모잠비크 등과 접경하고 있음.
- 탄자니아는 대륙 본토인 탕가니카와 과거 오만의 지배로 이슬람 성격이 강한 잔지바르(인구 약 1백만 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잔지바르는 별도의 자치 정부와 의회를 가지고 있음.
- 130여 개의 다양한 종족과 기독교, 이슬람교, 토착종교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에도 종족간 또는 종교간 마찰이 적어 내란과 테러 위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동아프리카공동체(EAC)의 일원으로 관세 동맹, 공동시장 설립 등을 통해 역내 평화 및 지역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나, 케냐와의 이해관계 대립에 따른 갈등이 드러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천연가스, 인프라 개발과 가계소비 증가로 2014년 8.2% 성장 전망

- 탄자니아는 원조자금을 활용한 도로, 항만, 전기 등의 인프라 개선, 서비스 산업(GDP의 약 60% 점유)의 급속한 성장, 금, 다이아몬드 등 광업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평균 6~7%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음.
- 금 수출가격 안정과 전력 공급의 증가로 2012년에는 전년대비 0.5% 포인트 상승한 6.9%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 2013년에는 금 수출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개발과 가계소비 증가로 전년과 유사한 7.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4년 역시 천연가스 및 인프라 개발 확대, 가계소비 증가로 전년보다 높은 8.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 열악한 세수 기반과 인프라 개발 등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 기조 유지

- 탄자니아 정부는 세수 기반이 열악하고 성장·빈곤감축 전략에 따른 인프라 확충, 빈곤 감소 프로그램 실시, 교육·보건의료 부문 투자 등으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12년 면세 분야 축소 및 금광 개발에 따른 수수료 수입증가로 재정 수입이 증가하며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4%로 전년 대비 감소함. 2013년에는 면세 분야 축소에 따른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확장적 재정정책 지속과 인프라 개발 확대로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6.0%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 2014년은 IMF의 권고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의 최대 5.0%까지 억제하는 목표를 수립하였으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인프라 개발 투자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달성 가능성은 낮음.

□ 식료품 가격 안정에 따른 소비자물가상승률 하락 전망

- 201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식품가격 및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16.0%를 기록하였음. 2013년에는 산업자재 가격의 상승, 탄자니아 실링화 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식료품 가격의 안정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8.5%로 하락하였음.
- 2014년에도 식료품 가격의 안정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하락한 5.8%로 예상되나, 탄자니아 실링화 가치와 강수량에 따른 변동 가능성이 높음.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o	2014 ^t
경 제 성 장 률	7.0	6.4	6.9	7.1	8.2
재 정 수 지 / G D P	-6.4	-6.7	-4.4	-6.0	-5.0
소 비 자 물 가 상 승 률	7.2	12.7	16.0	8.5	5.8

자료: IMF, EIU.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농업 의존적 경제구조로 기후변화 및 세계경기에 민감

- 농업은 GDP의 약 28%, 노동인구의 약 80%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임. 그러나 경작지가 국토의 약 4%에 불과하고 소규모 생계농이 대부분으로 관개시설 등 농업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강수량 등의 기후변화에 작황이 큰 영향을 받고 있음.
- 또한, 탄자니아의 주요 농산물은 커피, 차, 면화 등 수출용이며 식량용 생산은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따라서 농산물 및 식료품 수입가격에 따라 물가상승률과 경상수지가 크게 좌우됨.

□ 열악한 인프라, 부정부패 만연, 고급인력 부족으로 성장기반 취약

- 세계경제포럼(WEF)의 2013-14년 글로벌 경쟁력 지수(GCI)에 따르면, 탄자니아의 인프라 수준은 148개국 중 134위(도로 109위, 항공 134위, 전기공급 131위, 전화 140위)로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 전기는 전체 인구의 11%만 사용이 가능하고, 전력원의 대부분이 수력발전으로 가뭄시 전기사용 가능인구 중 20%에게만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음. 도로는 우천과 일몰 이후 안전상의 문제로 통행이 불가하며, 홍수시에는 도로가 유실되는 경우가 많음.
- 탄자니아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177개국 중 111위, 유엔개발계획이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DI)에서 185개국 중 152위로 부정부패와 고급인력 부족에 따른 열악한 기업환경이 해결과제임.

나. 성장 잠재력

□ 천연가스, 금, 다이아몬드 등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

- 금, 다이아몬드, 우라늄, 석탄, 니켈 및 탄자나이트(탄자니아에서만 생산되는 광물) 등 상업적으로 가치가 큰 광물들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주요 광물의 확인매장량은 금 4,500만 온스, 다이아몬드 2,000만 캐럿, 니켈 150만 톤 등이며, 광물 탐사가 이루어진 지역이 전 국토의 20%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광물자원 매장량의 추가확인 가능성이 높음.
- 특히 금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총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융위기 이후 국제 금 가격의 상승세와 맞물려 탄자니아의 최대 수출품목으로 부상하였음.
- 탄자니아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2013년 기준 65억 m³로 많지 않으나,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충분한 규모임. 또한, 2010년 이후 연안에서 천연가스가 꾸준히 발견됨에 따라 추후 수출 가능성이 제기되며 국내외 관심을 받고 있음.

다. 정책성과

□ 사회적 안정과 부정부패 척결 등을 통한 중소득국 진입 추진

- 정부는 농업 위주의 저소득국가에서 산업화를 기반으로 중소득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Tanzania Development Vision 2025’를 추진 중임. 동 계획은 단순한 경제발전 외에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안정, 고등교육환경 조성, 부정부패 척결 등 정치적, 사회적 발전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음.

□ 경제성장 및 빈곤감축을 목표로 하는 농업 중시정책 시행

- 탄자니아 농업은 GDP의 28%와 전체 수출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산업이나, 생산자의 80% 이상이 소규모 생계농이고 농업기술이 낙후되어 생산성이 매우 낮음.
- 탄자니아 정부는 경제성장 및 빈곤감축을 위해 과거부터 농업 발전을 중시하였으며, 현 정부도 농업의 혁신을 위해 농업과 관련된 여러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 정부는 민간, NGO, 국외 투자자 등 여러 주체의 참여를 통해 탄자니아 국토의 약 1/3에 해당하는 지역을 특별농업지역으로 지정하여 식량 자급자족, 농업의 현대화라는 정책전략을 추진 중임.

□ 도로 건설, 화력발전소 건설 등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하나 성과 미흡

- 탄자니아는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으로부터 1.2억 달러의 차관을 받아 Arusha부터 Halili를 잇는 총 157.5km의 도로를 건설키로 하였으며, 부족한 항구시설의 확충을 위해 중국 기업으로부터 10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여 Bagamoyo 지역에 새로운 항구를 건설키로 함.
- 발전방식을 다변화하기 위해 국내 부존자원인 천연가스와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발표하는 등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전력공급 증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전력공기업의 재정난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

3. 대외거래

□ 금 가격 하락과 자본재·소비재 수입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 기조 유지

- 세계 금융위기 이후 주요 수출품인 금 가격의 상승과 농업 부문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광업, 제조업, 통신업을 중심으로 자본재 수입이 급증하며 대규모 상품수지 적자가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지고 있음.
- 금 가격 하락과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자본재 수입,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재 수입 증가로 2013년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16.0% 증가한 48.7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 2014년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대비 9.8% 증가한 5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나,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2013년 16.2%에서 15.7%로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e	2014 ^f
경 상 수 지	-2,758	-4,602	-4,195	-4,867	-5,345
경 상 수 지 / G D P	-12.4	-19.8	-15.6	-16.2	-15.7
상 품 수 지	-2,841	-4,730	-4,413	-5,258	-5,779
수 출	4,324	5,098	5,912	5,901	6,300
수 입	7,166	9,828	10,325	11,159	12,079
외 환 보 유 액	3,904	3,726	4,052	4,676	5,227
총 외 채 잔 액	8,676	9,515	10,887	11,748	13,451
총 외 채 잔 액 / G D P	38.4	40.2	42.2	38.8	40.2
D . S . R .	2.2	2.0	2.3	2.7	5.8

자료: OECD, EIU.

□ 원유·천연가스 개발에 대한 FDI 유입으로 외환보유액 증가 지속

- 외환보유액은 원유·천연가스 개발에 대한 꾸준한 FDI 유입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2013년 외환보유액은 전년 대비 15.4% 증가한 46.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4년에도 꾸준한 FDI 유입으로 52.3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재정수지 적자지속에 따른 해외차입 규모 증가 지속

- 외채규모는 파리클럽의 대규모 외채 탕감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재정수지 적자분을 해외차입으로 보전함에 따라 차입규모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2013년 총외채잔액은 전년 대비 8억 달러 증가한 117억 달러(GDP의 38.8%)로 추정되며, 2014년은 2013년보다 17억 달러 증가한 134억 달러(GDP의 40.2%)로 예상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Kikwete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으로 정치적 안정 유지

- 탄자니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 이후 현 여당이 집권을 유지하며 사회 전반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현 Kikwete 대통령 역시 여당 출신으로 여당의 정치적 지배력을 바탕으로 2010년 재선에 성공하여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펼치고 있음.
- 정부는 높은 물가상승률과 빈곤율 등으로 인한 국민적 지지도 하락을 회복하기 위해 'Tanzania Development Vision 2025'를 수립함으로써 삶의 질과 사회적 복지를 개선하고 있으며, 2015년 대선까지 특별한 정치적 이슈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사회적 안정 유지 속에서 잔지바르 분리독립 움직임 지속

- 탄자니아는 1961년 독립 이후 아프리카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국가들 중 하나로 평가받아 왔으며, 30여 개의 다양한 종족과 기독교, 이슬람교, 토착종교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에도 두드러진 종족간 또는 종교간 마찰은 없음.

- 다만, 탄자니아 정부는 잔지바르에 자치 정부와 의회를 허용하고 화합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잔지바르에서 일부 야당 세력을 중심으로 분리 독립 운동이 지속되고 있음.
- 과거 야당 주도로 잔지바르 독립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여 유혈진압으로 이어지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정치적 공방만 이어지고 있음. 정부는 정치적 안정 및 화합을 위해 잔지바르의 독립성을 확대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 중임.

3. 국제관계

□ 부정부패 만연에 대한 원조국의 우려 증대

- 2013년 Dar es Salaam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원조국들은 탄자니아의 부정 부패 개혁의 부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으며, 부정부패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원조를 철회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함.
 - 원조액은 탄자니아 재정의 10%에 상당하는 규모임.

□ 중국과의 관계 강화 및 천연가스에 대한 미국의 관심 증가

- 부정부패 문제로 원조국가와 불편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하였으나, 가장 큰 무역상대국인 중국과의 관계는 강화되는 한편, 탄자니아의 천연가스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2013년 시진핑 중국 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경제협력을 논의 하기 위해 탄자니아를 방문하였음.

□ 동아프리카 지역의 리더이자 동아프리카공동체(EAC)의 중심국 역할 수행

- 탄자니아는 케냐와 더불어 동아프리카 지역의 리더이자 동아프리카공동체 (EAC)의 주도국으로, 지역통합의 가속화와 동아프리카 국가간 무역거래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 ※ 동아프리카공동체(East African Community, EAC):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부룬디의 5개국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체임. 2005년 역내 관세동맹의 출범, 2009년 단일 공동시장 창설협약의 체결, 2010년 역내 공동 관세율의 적용 등 궁극적 경제·정치 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 EAC 5개 회원국들은 2013년 11월 30일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단일 통화를 도입한다는 합의안에 서명하였으며, 이를 위해 통합 중앙은행을 설립하고 재정정책도 단계적으로 통합할 계획임.

□ 케냐와의 갈등으로 EAC 분열 조짐

- 그러나 EAC의 양대 축인 탄자니아와 케냐를 중심으로 회원국간 이해관계의 대립에 따른 갈등이 표출되며 분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탄자니아는 부룬디와 우의를 다지면서 콩고민주공화국을 끌어들이는 반면, 케냐는 우간다, 르완다와 결속을 강화하고 남수단을 끌어들이고 있음.
- 2013년 6월 케냐, 우간다, 르완다 3개국 정상은 3개국을 통과하는 송유관, 철도, 발전소 건설과 단일 관광비자 발급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음. 이에 2013년 10월 탄자니아 EAC 장관은 콩고민주공화국, 부룬디와 경제적 결속을 추진 중임을 발표하였으며, 11월에는 EAC 국가간 단일 비자 도입에 반대를 표명하여 EAC의 분열이 감지되고 있음.
- 탄자니아는 Dar es Salaam 항을 주로 이용하는 내륙국인 부룬디, 콩고 민주공화국과의 결속을 강화하는 반면, 케냐는 Mombassa 항을 주로 이용하는 내륙국인 우간다, 르완다, 남수단과 새로운 지역협력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관측됨.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대규모 외채 탕감 경험

- 고채무저소득국 이니셔티브((HIPC Initiative)에 따라 2000년 30억 달러의 공적외채를 탕감받았고, 2006년 다자간 채무탕감 이니셔티브(MDRI Initiative)에 따라 38억 달러의 외채를 탕감받음.

□ OECD 회원국 ECA의 대 탄자니아 지원현황(2013년 3월말 기준)

- 단기: 총 지원잔액 1억 달러(연체금액 없음)
- 중장기: 총 지원잔액 5억 달러(연체금액 3백만 달러)

□ IMF 및 세계은행 연체현황: 없음(2013년 3월말 기준)

□ 외채규모는 증가 추세이나 단기 외채상환능력은 양호

-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공적 원조를 포함한 외채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GDP 대비 외채규모는 40%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D.S.R.은 3% 미만으로 단기 외채상환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보임.
- 2012년 기준 탄자니아는 원조국으로부터 25억 달러(재정의 10%)를 수혜 받음.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D1 (2012. 7.)	D1 (2011. 9.)
OECD	6등급 (2013. 6.)	6등급 (2012. 3.)

※ S&P, Fitch, Moody's의 신용등급 없음.

□ 주요 ECA 인수태도

- 미국 EXIM: 제한적 중·단기 인수가능
- 영국 ECGD: 단기 인수가능, 제한적인 중기인수
- 독일 Hermes: 단기 인수가능,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92년 4월 30일 (북한과는 1965년 1월 4일 수교)

□ 주요협정 : 경제과학기술협정('05), 문화협정('06), 봉사단파견에 관한 양해각서('02),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05)

□ **교역규모**

- 2013년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는 1.9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수출은 합성수지, 기타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145백만 달러, 수입은 동제품, 기호식품 등을 중심으로 46백만 달러를 기록함.

<표 4>

한·탄자니아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2011	2012	2013	주요품목
수 출	91,111	199,648	145,052	합성수지, 기타석유제품, 기타섬유제품 등
수 입	45,093	23,298	46,144	동제품, 기호식품 등

자료: 한국무역협회.

□ **양국간 해외직접투자 현황**

- 우리나라의 대 탄자니아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기·가스 및 수도 사업 순이며 투자실적은 2013년 말(누계기준) 신규 법인수 총 18건, 투자금액 7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 탄자니아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내역은 총 2건, 45만 달러임.

V. 종합 의견

- 탄자니아는 최빈국으로 열악한 인프라와 기술인력 부족으로 경제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러나, 천연가스와 풍부한 광물자원, 서비스 산업 성장, 인프라 개발 확대에 따라 6~7%대의 성장을 유지하였음. 2014년에는 성장속도가 가속화되며 8.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 열악한 세수기반과 인프라 개발 확대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수출품인 금 가격의 하락과 경제성장에 따른 수입품목의 소비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 규모 역시 증가하며 쌍둥이 적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정치적으로는 집권여당이 오랜기간 국민의 지지를 받아왔으며 Kikwete 대통령이 2010년 대선에서 연임에 성공하는 등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지속되고 있음. 일부 야당세력을 중심으로 잔지바르 분리 독립 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나, 헌법 개정 등의 대응을 통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 정부의 인프라 건설 등 투자 증대에 따라 총외채잔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단기외채 비율이 낮고 D.S.R.도 2%대에 머물러 있어 단기 외채상환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됨.

조사역 임민교(☎02-3779-5727)
E-mail : ymg@koreaexim.go.kr